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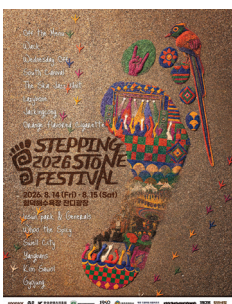
2년 만의 해변 음악 축제 더 뜨겁고 뜻깊게

2026 스텝스톤 페스티벌
14~15일 함덕해수욕장서
20회째 완성도 높은 무대로

한국콘진원 지원 사업 선정
지역 상생 유료 입장 도입

2년 만에 다시 열리는 축제다. 지난해 예기치 않게 축제 개최가 무산되자 이를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여름이면 이 축제에 맞춰 제주로 향하는 항공권을 예약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뜨거운 계절, 제주에서 노는 판을 만들어 온 스텝스톤 페스티벌(Stepping Stone Festival)이다.

2004년 첫발을 내디딘 이래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7월 둘째 주를 중심으로 거의 매년 치러온 스텝스톤 페스티벌이 이달 14~15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



2024 스텝스톤 페스티벌.

스텝스톤 제공

장 잔디광장에서 펼쳐진다. 이번이 20회째다. 특히 올해는 한국콘진원 지원의 '대중음악 공연 지역 개최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20여 년 생명력을 이어 온 지역 음악 축제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다시 돌아온 여름명절'. 슬로건이 보여주듯 주최 측은 제주 여름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축제를 기다려온 국내외 관객들에게 더욱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출연진은 사우스카니발, 스웰시

티, 웬즈데이오프(Wednesday Off) 등 제주 밴드 3팀을 비롯해 텐츠진흥원의 '대중음악 공연 지역 개최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20여 년 생명력을 이어 온 지역 음악 축제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그간 '무료 페스티벌'이었지만 이번엔 지속 가능한 축제 운영 등을 취지로 유료 입장 시스템을 도입한다. 예매(일일권 1만5000원)

시 축제 현장에서 '탐나는전' 1만 원권으로 돌려줘 방문객들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설계했다. 입장료를 지불하지만 실제론 지역화폐 즉시 환급, 기념품 제공 등 더 큰 혜택이 따른다. 입장권 예매는 온라인 사이트 '투더문'을 이용하면 된다. 축제 당일 현장 구매(1만원)도 가능하지만 환급 혜택은 없다.

메인 포스터에 제주 멸종 위기 야생 생물인 '긴꼬리딱새'를 담은 등 친환경을 지향하는 축제로 행사장 내에선 다회용기를 쓴다. 축제 수익금의 일부는 꽃자왈공유화재단에 후원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축제 주최·주관은 (주)이다. (사)스텝스톤. 김명수 이다 대표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지역 상생과 환경 보호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진짜 '여름명절' 같은 축제로 준비했다"며 푸른 바다와 음악이 있는 함덕으로 초대했다. 상세 일정 등 공식 SNS(Instagram.com/steppingstonefestival) 참고.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쏙지

▷서귀포시 생활문화플랫폼 2관 개관=제주월드컵경기장 내 옛 다종이 인형박물관 자리에 들어선 생활문화플랫폼 1관 인근 유류 공간(창고)을 리모델링해 연습실로 만들었다. 5~6인용 연습실 2곳, 12~13인용 연습실 1곳을 갖췄다. 악기 연습, 동아리 활동, 소규모 음악 활동 공간 등으로 무료 개방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이다. 이용자 사전 예약은 전화(760-2508-9)로 이뤄진다. 앞서 문을 연 1관은 1~2인용 연습실 2곳, 3~4인용 연습실 7곳을 뒀다.

▷제주현대미술관 '색으로 만나는 관계의 심리학'=성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색채와 표현 예술 활동을 통해 삶을 이루는 다양한 관계를 돌아보고, 관계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와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부부·친밀 관계, 자녀·다음 세대와의 관계 등 네 가지 주제를 살펴보고 자기 이해를 넓히고 정서적 통합을 경험할 수 있다. 9월 15·22·29일, 10월 7일 미술관 도서실. 무료. 참가 신청(선착순)은 이달 31일 오전 10시부터 미술관 누리집.

▷김창열미술관 아티스트 토크=화면 위에 색채를 겹쳐 올리는 작업으로 알려진 하태임 작가를 초청했다. 하 작가는 부친(하인두 화백)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김창열 화백과 알고 지냈다. 하 작가가 직접 자신의 예술 세계를 소개한 뒤 양은희 김창열미술관장이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가 이어진다. 대담에선 프랑스 유학 시절 김창열 화백에게 받은 영감, 세계 미술 시장에서 주목받게 된 배경, 색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작업 방식 등을 나눌 예정이다. 문화가 있는 날인 이달 19일 오후 2시부터. 미술관 누리집 참고.

제주·경남 서각 교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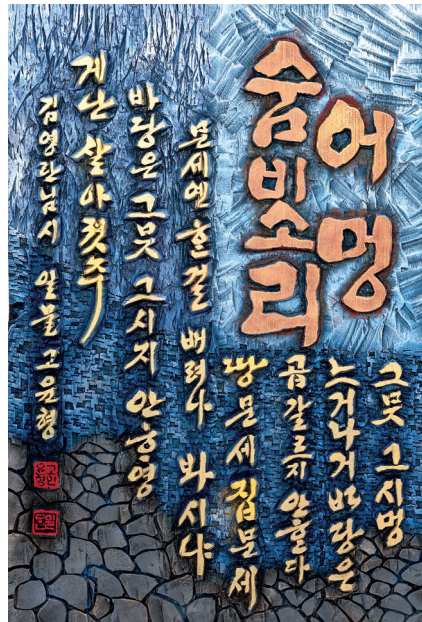
문예회관·해녀박물관서

제주와 경남의 서각인들이 여름 전시장에서 만난다. 사단법인 한국서각협회 제주지회와 이달 15~20일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22번째 회원전을 겸해 펼치는 서각협회 경남지회와의 교류전이다.

교류전에선 지역은 다르나 서각이라는 조형 언어를 공통분모로 전통의 깊이와 현대적 감각을 살린 작품을 선보인다. 제주지회 회원들은 제주 방언, 해녀의 마음 등을 담은 작품을 출품한다.

문예회관 전시 개막식은 첫날 오후 4시. 문예회관에 이어 이달 22일부터 9월 4일까지는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으로 옮겨 2차 전시를 갖는다.

고윤형 한국서각협회 제주지회



제주 고윤형 출품작. 서각협회 제주지회 제공

회장은 "이번 교류전은 제주와 경남 서각인들이 서로의 작품 세계를 나누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서각 예술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고재만의 제록기집터 <512>

구성:(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골멘: "야오달아, 이제부떠 제주시 오라동 양전형 시인이 쓴 제주어 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엔 훈 디서 '구쟁기집터도 집이 가지그렵다'에 대한 시 이악을 하여보켜."

구쟁기집터도 집이 가지그렵다

화단에 봄꽃이 피고
별 나비들이 슬락슬락한다
꽃밭 트명에 누워둬서 말을 숨지는 구쟁기집터
어명 홀런와신디 여정은 몰르주만
풍경 소품 좋은 소품이렌 생각했주

어느 날 두령청이 북름이 담아들었주
구쟁기집터이 부-우웅
배 떠나는 고통소리를 내연
바당이 고향이라노난 익숙하게 내연
집이 가고정흔 것 몰았주

무뚝뚝 울적함이 솟아올르는
비가 못는새웃이 노리는 장마 마리
구쟁기집터이 무신 말을 험신디사
목이 쉬게 예는 연사처럼
해원 바깥바깥 계곡을 먹던 싹다
바작 들른 몸예 생생흔 추억이 박아전 이신가
집이 가사흔다는 소리 생이여
아메도 갯갯디 드러라 쥐사키여

<자료 : 양전형 제주어 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 도서출판 다충>
<계속>

제주어 풀이

*슬락슬락한다: 거침없이 드나든다 *누워둬서: 누워서
*숨지는 구쟁기집터: 삼키는 소리처럼 *홀런와신디: 홀려왔는지
*두령청이: 노닥없이 *못는새웃이: 하염없이
*가고정흔 것 몰았주: 가고싶어하는 것 같았지
*노리는 장마 마리: 내리는 장마 무렵
*험신디사: 하는지 *해원: 온종일
*박아전 이신가: 박혀 있는가 *소리 생이여: 소리 같다
*아메도: 아무래도 *갯갯디: 바닷가에
*드러라 쥐사키여: 드러라 쥐야겠다

제주↔베트남전세기 3박5일

10. 3(토,밤출발) - 10. 7(수,아침도착)

하노이, 하롱베이 1,290,000

하노이, 사파 1,390,000

제주↔일본전세기 3일

특별한 가을 여행

오кина와 10.16(금)-18(일)

구마모토 10.31(토)-11.2(월)

1,099,000

※양국정부인허가조건※

제주↔항주(룽에어)

매주 목요일 | 10명 이상 출발 | 3박4일

노탑! 노옵션! 노쇼핑!

항산 1,199,000

오진 1,199,000

상해 1,099,000

가을 항산 4인 출발확정

• 10.8(목) - 11(월) 1,249,000(한글날연휴) • 11.2(월) - 5(목) 1,199,000

제주↔청주↔장가계

9월 특가 (노옵션)

3박4일(토) 4박5일(화)

849,000

제주↔청주↔베트남

3박5일 (노탑,노옵션)

다낭&호이안 750,000~

나트랑&달랏

제주↔청주 국내선 별도



니하오여행사 064)722-6638 제주시 진남로 32

포함 사항: 왕복항공료(공항세,TAX,유류할증료 포함), 호텔(2인1실), 차량료, 입장료, 식사, 가이드, 여행자보험 등
불포함 사항: 부가가치세(10%), 봉사료, 선택관광 | 2억원 보증보험 가입업체